

월요광장

환대하는 용기에 대하여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말과 문자는 쓰는 사람이 없으면 점차 사라지는 것이다. '환대'라는 단어도 쓰임새가 줄어들는 단어 중 하나다. 그 이유는 '나'와 '너'의 사이가 그만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환대는 어렵게 찾아온 낯선 사람을 내쫓지 않고 반갑고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디세이아'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인류 최고의 고전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오디세이아'는 BC 750년경에 호메로스가 쓴 서사시다. 유명한 트로이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된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10여 년 동안 겪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그린 이야기다. 오랫동안 오디세우스를 붙잡고 놔

주지 않던 아름다운 님프 칼립소는 아무리 해도 오디세우스를 막을 수 없음을 알고 마침내 이별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먼 길을 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 주기까지 한다. 이왕에 떠나야 할 사람이라면 잘 보내고 싶은 것이다.

고향을 찾아가는 길에 오디세우스는 어딘지 알 수 없는 낯선 곳에 이르자 불안해진다. 오디세우스는 불안을 토하듯이 혼잣말을 한다. "나는 또 어떤 인간들의 나라에 올 것인가? 그들은 오만하고 야만스럽고 옳지 못한 자들일까, 아니면 나그네들에게 친절하고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씨를 가진 자들일까?"

이런 오디세우스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 것보다 더 불안한 일은 없다. 낯선 곳에 대한 불안은 공간적으로 익숙하지 않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위협하게 될 수도 있는 극단적 상황에 대한 감정이다. 게다가 오디세우스처럼 도움을 청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불안은 더 커진다. 낯선 사람에게 드러내는 야만성과 오만은 그 낯설음이 불편할 때 흔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디세우스가 말하는 '야만'이란 다른

거나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드러내는 타인에 대한 폭력성이다. '나그네에게 친절할 환대'를 하지 않는 것이 야만이라는 의미는 낯선 사람이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좀 더 분명해진다. 낯선 사람이란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낯선 사람은 전에 본 적이 없거나 관계가 없는 사람만을 말하지 않는다. 서로의 생각과 배경이 다르거나, 언어가 다르거나 지향하는 길이 다르거나 또는 그저 피부색이 다르거나 방식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낯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스스로가 누군가의 '낯선 사람'이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이 낯설다는 이유로 합부대로 한다. 이런 야만성은 키를롭스라고 하는 외노박이 괴물에게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 괴물은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잡아먹는다. 이 괴물이 찾아오는 사람을 잡아먹는 것과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은 같은 의미다. 한쪽 눈으로만 보는 태도가 바로 식인성의 야만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어떤 조건과 신분과 위치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환대하는 사람이 나누사기 공주다. 불안한 오디세우스에게 나

우사기 공주는 "이제 그대는 우리 도시와 나라에 왔으니 웃은 물론이고 불운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도움이라면 무엇이든지 당연히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왕인 아버지에게 안내한다. 나누사기의 아버지는 더 극진한 대접을 하며 주저 없이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준비해 준다. 이 환대의 나라에서 낯선 사람은 신이 보낸 선물이기 때문이다.

왕은 자신에게 보내진 '귀한 선물'을 극진하게 환대하며 '즐겁게 빨리 고향 땅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물론 이것저것을 따지면서 조건을 걸지도 않는다. 환대하는 마음은 야만을 극복하는 인간성의 발현이며 한 눈으로만 세상을 단정하지 않으려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야만이 단순히 분노에 이르는 동물적인 모습의 표시라면 환대는 인간성의 증표이며 야만을 이겨 내고 윤리적인 인간다움을 실천하는 용기다.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하며 다른 언어를 쓰는 낯선 존재다. 이 낯설음에 대한 외노박이의 태도가 바로 우리 안의 자비심임을 깨달을 때, 인간다움을 이룰 수 있다. 누구나 처음에는 서로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던가.

법조칼럼

'한 표의 기적' 법관 탄핵 요청 결의에 거는 기대



이대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소통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다.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시하던 아니면 대신 행사할 대표자를 뽑든 그 수단은 투표이며, 다수표를 얻은 의결 또는 후보가 승리한다. 다수가 전체의 얼마여야 하는가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동일 득표에 관한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승부의 가장 작은 표 차이는 한 표다. 그 승부를 가르는 것은 대부분 한 표보다 훨씬 많은 표차이지만 때로는 한 표 차이가 되기도 한다.

이런 '기적'이라 할 만한 한 표 차이 승부는 현실적으로도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 한 표차이로 운명이 갈린 경우는 열세 번이었다

고 한다. 이번 법관 회의에서 사법 농단에 관여한 고위 법관에 대한 탄핵 요청 결의안 통과도 한 표 차이였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민주 사회에서 최소한 자신의 능력만큼은 대우받는 것은, 그러길 원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하는 미덕이며,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미덕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간만 허락했다면 무탈하게 맡은 일을 잘 처리하여 능력 있다고 평가 받고 좋은 인품으로 알아야 유망한 법관이, 삼권 중 가장 취약한 사법권을 지킨다는 대의 명분 아래, 정도를 걷기 보다는 쉬운 길(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어려운' 가시밭길)이 아니었을까?)을 선택한 것이 결국 사법 농단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번 사법 농단의 대의명분은 사법부를 지킨다는 것이었다.

사법부의 구성원들인 법관이 신분에 관한 한 가장 강력하게 보호 받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취약하다

고 느낀다면, 그것은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이 행정부나 입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할 때 가장 취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행정부나 입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택한 권력임에 비해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택한 그 권력으로부터 선택 받은 권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당성을 부여 받는 것, 즉 고위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국민이 고위 법관을 직접 선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사법권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이지 이번 사법 농단은 결코 사법권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다.

고위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과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가? 할까?' 라는 회의가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최근 법관 회의에서 사법 농단에 관여한 고위 법관들에 대하여 탄핵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가결하여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가 과연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필자의 사견으로는 적어도 이 결의안이 불통과되었으면 적멸할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했으며, 국민의 사법권에 대한 신뢰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는 단초는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오늘날에도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금과옥조 중의 하나가 아닐까?

이번 법관회의의 105명의 참석자 중에서 찬성표를 던진 53명 중 누군가의 '한 표'가 이번 투표의 결과를, 사법 농단에 관여한 고위 법관에 대한 탄핵 요청 결의안 불통과에서 통과로 뒤집었다. 이 한 표의 '기적'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비록 지난날처럼 더 나아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적을 가져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비단 필자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기고

남북 교류 협력, 물질 트고 수풀을 마련할 때다



서대석
광주시 서구청장

올해는 국내외적 경기 불황과 취업난 등 힘든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남북 정상들의 뜨거운 포옹과 맞잡은 두 손을 보며 함께 눈시울을 붉히고 고단한 일상을 위로받은 한 해였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전운이 감돌던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이 몰아쳐오고, 이제 남북 화해와 한반도 공동 번영은 거스를 수 없는 물줄기가 되었다.

'500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떨어져 살았던' 민족적 동질감에 더해 '항후 통일 한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어느 세계적 투자 회사의 장밋빛 전망 또한 우리를 설레게 한다.

여기에 최근 여러 지자체들이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남북 교류 활성화 노력들

이 이목을 끌고 있다.

남북 접경 지역 지자체들의 움직임은 특히나 눈에 띈다. 강원도는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 공동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개최식은 강릉이나 평창에서 열고, 원산 마식령 스키장 등에서의 폐회식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고 전해진다. 파주시는 2022년까지 남북 교류협력 기금 50억을 모아 통일 시대를 대비한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소식이다.

여타 지자체들도 남북 교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철강 도시라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포항시는 환경 북도 청진시와의 점접 찾기에 노력 중이라고 한다. 충남도는 농업 기반 산업 구조와 서해안을 접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켜 황해도와의 교류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중앙 정부가 통일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 척추와 뼈대를 세우는 과정에서 지방 정부들은 통일의 에너지를 실어나르기 위한 수월 준비에 여념이 없다. 중앙 정부가 체계화된 법령과 협약 등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제도와 틀을 만드는 동안 지자체들은 북측과 수시로 소통하

며 다양한 교류 협력 정책들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통일 한반도로 가는 길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지방 정부들이 소통, 호흡하며 동족간 연대감을 형성하는 노력이다.

중앙 정부는 국제 사회의 흐름에 밀려 적극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지방은 국제 정세로부터 그나마 한 발짝 떨어져 있어 좀 더 자유로운 행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층 유연하게 남북 교류를 진행할 수 있다.

남북 교류의 또 다른 한 축인 민간 단체나 사기업들과만 비교해도 지방 정부는 특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북측의 교류 상대방들에게 일관되고 안정된 파트너십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은 무척이나 컸다. 통일 직전인 1989년 동서독 62개 도시가 인적 물적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고 1990년 통일 이후에는 서독의 모든 지방 정부들이 동독 지방 정부와 결연을 맺고 다양한 지원에 나섰던 것이다.

하지만 독일과 달리 우리에게도 아직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가 않다. 무엇보다 지방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현행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 정부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사업 하나하나마다 중앙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민간 단체를 통해 간접 교류를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지방 정부간 책임 있는 교류 사업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실질적 권한 없는 한발 빠진 모양새의 교류 협력은 변죽만 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럽다.

'물고기를 이르게 하고 싶거든 먼저 물길을 트고, 새가 오게 하고 싶으면 먼저 나무를 심으라'고 했던가.

통일 한반도를 기대하는 자들의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말이다. 이제는 지방 정부가 나서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물길을 만들고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社說

문자에 남겨 수익 뜯긴 시장 누굴 탓해야 하나

전직 광주 시장이 문자에 남겨 수익 원을 뜯겼다는 소식이 지난주 광주일보 보도로 처음 알려진 후 시중의 화제는 온통 이 희대의 사기 사건에 쏠리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 사건은 지난주 A씨(49)가 사기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A씨는 전·현직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김정숙 여사를 사칭했으며, 윤 시장은 재임 시절 4억 5000만 원을 뜯겼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마련한 돈의 출처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민주당 선거운동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일부 자치단체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한 A씨는 지난해 12월 이 지역 유력 인사 10여 명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권양숙입니다. 다름 아니라 딸 비즈니스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5억 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란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문자를 받은 일부 유력 인사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오자 경상도 사투리를 섞은 목소리로 응답하는 수법을 썼는데, 대다수 인사들과는 달리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던 윤 시장만 속아 넘어간 것이다. 윤 전 시장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난 10월 초까지도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은 비교적 어리숙한 사기 사건이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의 피해액수와 피해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경종을 울리고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자신은 당할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은 특정한 성별·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허용 잃는 게 더 많다

농업진흥구역 안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전남 시군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잇그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에 보냈다.

개정안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농지의 타 용도 임시 사용 허가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농업진흥구역은 식량 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다원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농촌을 개발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남 지역 단체장들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으로 농어촌 지역의 태양광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어져 경관 파괴와 임야 훼손, 투기 세력에 의한 개발 이익 유출, 환경 오염과 자연 재해 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도입된 농업진흥지역이 갈수록 줄어드는 데 대한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농지 조성이나 농업 기반 정비로 상당한 규모의 토지가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한 농업진흥지역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무려 12만6000ha나 감소했다. 이 기간 농도인 전담에서도 14%나 줄었다. 농지 감소로 농업 종사자가 줄면 식량 자급률이 더욱 낮아져 식량 주권을 위협 받을 우려가 크다. 정부는 현재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어떠한 경우든 농업진흥구역만큼은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채만식의 소설 '태평천하'는 일제 강점기 고리대금업자인 윤직원 일가를 통해 시대의 의식을 묻는 작품이다. 윤직원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자기 집안만 성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빠진 인물이다. 그는 학교의 우두머리인 '직원' 자리를 돈으로 산 데다 족보까지 바꿔 신분 세탁을 했다. 마지막 바람은 두 손자가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첫 손자는 주색잡기로 재산을 탕진하고 둘째 손자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체포된다.

'야만인의 영웅' 석해균 선장과 북한 병사를 살려 낸 이극중 교수는 '골든아워'라는 책에서 중증외상센터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너무 많은 사람이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길에서 죽어 나간다"며 "의상외과 환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노동자들이며, 정책의 스포트라이트는 없는 자들을 비추지 않으므로 그 불빛은 외상외과에 닿지 않는다"고 통탄했다.

'태평천하'

윤직원에게 '태평천하'의 의미는 집안의 안녕과 물질적인 풍요다. 이를 위해서는 일제 식

광주형 일자리의 골든타임이 목전에 닦졌다. 조만간 성과가 평가를 내렸지만 협상의 최대 정점이 둔 문제 이를 위해서는 일제 식

민 지배가 지속되어야만 한다. 그에게 독립이나 민족 문제 같은 공동체 의식 따위가 있을 리 없다. 광주형 일자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물거품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급기야 여당 내부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 추진자는 제3대안론까지 나왔다. 모든 세상사에는 타이밍이 있는 법이다. 특히 '골든타임'은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간이나 재남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말한다.

광주형 일자리의 골든타임이 목전에 닦졌다. 조만간 성과가 평가를 내렸지만 협상의 최대 정점이 둔 문제 이를 위해서는 일제 식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주독 신형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4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220-0642	220-0697	체육부	02-773-933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